

2006년 시·도 연찬회시 설문결과

1. 목적

- 협회사업에 대한 회원들의 인식도 파악
- 협회 장기발전 방향을 위한 회원들의 의견수렴

2. 참석대상 및 인원

- 각 시·도연합회 : 각 시·도연합회 관내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함.
- 연찬회 참석인원 : 총 359명중 201명이 설문에 응답하였음.

3. 시행내용(인원 및 일시)

- 시행일시 : 10월 18일~11월 24일 (8개 시·도연합회)

4. 설문조사 결과 요약

- 본회 설립이념에 대한 생각으로 시대상황에 맞게 재조명 하고 새롭게 변경해야한다는 의견이 전체 61%를 차지하였고, 기존대로 존속시킨다는 비율은 39%로 나타남.
- 협회가 역점을 두어야할 사업으로는 도농녹색교류 및 지역개발위주의 교육과 컨설팅, 도시민교육, 농촌정주사업이 전체의 63%를 차지하였고, 조직개편 및 농민교육 사업이 12%로 나타났음.
- 본 협회가 추진하는 도농녹색교류 및 살맛나는 농촌 가꾸기 사업방향에 대해 전체의 92%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음.
- 협회의 명칭에 대한 설문으로 현행대로유지가 52%를 차지하였으며, 다음으로 선도농가(소비자 협회포함)등으로 개편이 48%정도로 나타났다.
- 본 회의 회원 구성에 대해서는 선도농가와 도시 소비자를 포함하자는 의견이 69%로 높게 나타났고, 현행대로 하자는 의견이 29%였음.

○ 협회조직 및 임원개편은 지역상황에 맞게 원로와 신규 회원을 조화롭게 참여와 젊고 의욕적인 회원으로의 개편이 전체의 78%로 압도적으로 나왔으며, 현행유지가 21%로 뒤를 이었다.

○ 회보발간사업에 대하여는 전체82%가 만족한다는 의견을 나타냈음.

○ 회보명칭변경에 대하여는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64%, 기존대로유지가 36%로 나타났음.

○ 전국농업기술자대회에 대하여 기존대로 년1회 실시가 57%로 절반이상을 차지하였으며, 그 외 의견이 고루 나타났다.

○ 협회 재정확보방안으로는 진흥관 매각 후 이전이 43%를 차지하였으며, 현 장소에 진흥관 신축 및 리모델링이 42%로 나타났음.

○ 적정연회비 수준은 년 2만원이 49%로 나타났으며, 년3만원이 26%로 전반적으로 회비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었다.

○ 시도연합회조직 및 시군지회 조직정비에 대해서는 지역상황에 맞게 원로회원 및 신규 회원의 참여, 젊고 의욕적인 임원개편이 전체 85%, 71%로 나타났다.

5. 연찬회 총평

○ 현재 협회의 재정적인 어려움과 협회의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다수가 공감하고 이해하였음.

○ 연찬회 참석자수가 예상보다 저조하게 나타났으며, 이에 대한 원인으로 농번기에 실시한 점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지역 임원 및 회원들의 관심(참여의식)부족인 것으로 생각됨.

○ 일부 참석자들은 교통이 불편하다는 소견이 있었으나, 장소 및 진행은 대체적으로 원만하게 추진되었음.